

‘반도체 52시간제 예외’ 갑론을박... 민주, 절충점 찾을까

특별법 예외조항 명시에 반대한 거세...법 대신 ‘고시 개정’ 거론 비명계 전제 기류도 맞물려...李, 중도 확장·당내 통합 사이 고민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성장 담판’을 앞세워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중도층 공략을 이어가면서 ‘우클릭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특별법에 ‘52시간 근로 제한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불거진 우리나라의 ‘인공지능(AI) 도태론’을 의식해 반도체 산업 등에 예외를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당내 반발도 이어지고 있어 절충안’을 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예초 당내에서는 그동안 이 대표의 행보를 고려하면 이번에도 기업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특별법에 예외조항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제 등에서 과감한 중도공략 행보를 보이며 실용주의적 면모를 부각해왔다.

하지만 최근 이 사안에 대해서는 물러서지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조금씩 당내 기류가 달라지는 모습이다.

이인영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은 윤석열이 아니다. 단순한 우클릭은 오답”이라고 말했다.

당당 상임위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대 의견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한노위원은 6일 통화에서 “특별법에 굳이 명시하지는 주장의 근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지금 있는 특별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런 기류와 관련해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이 대표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반도체특별법에 52시간 예외 문제를 거론하지 않되,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를 개정해 특별 연장근로를 더 유연하게 만든

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특별법은 손대지 않으면서 실제로 기업에는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절충안’인 셈이다.

이 대표의 정책 노선이 ‘우향우’하는 모습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 비명(비이재명계)계가 이 대표 견제를 본격화하는 상황 역시 이 대표의 고민을 더욱 깊어지게 만드는 요소다.

이 대표가 야권 내 반대론을 배제한 채 혼자 ‘결단’을 내리는 모양새가 되는 것은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날도 야권 내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가 통합 행보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혼자 모든 걸 짚을 수는 없다”며 “이재명이 아니어도 정권교체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무소속 김종민 의원도 SBS라디오에 나와 “윤석열 정치를 갈라진 대한민국을 이재명 정치가 통합할 수 있느냐를 국민들이 질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반도체 산업 52시간제 예외 결정을 밀어붙일 경우 이를 향한 비명계의 공격이 더 거세질 수 있다. 당내 통합이 과제로 떠오른 이 대표로서는 이런 흐름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이 대표로서는 특별법에 근로시간 예외를 반영하지 않는 것 역시 부담이 되는 부분이다.

야권에서는 “52시간제 예외가 명시되지 않은 특별법은 의미가 없다”며 이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거세질 경우 조기 대선을 앞두고 계속해 온 중도 공략의 취지가 일부 퇴색될 수 있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거세질 경우 조기 대선을 앞두고 계속해 온 중도 공략의 취지가 일부 퇴색될 수 있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신년 세미나에서 김민석 총괄본부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 권력구조 개편 ‘원포인트 개헌’ 무계

당 개헌특위원장에 주호영...대통령 중임제·양원제 도입 거론도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6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어 국회 최다선(6선)인 주호영 의원을 당 개헌특별위원회장에 임명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 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1987년 체제 이후에 8명의 대통령이 나왔는데, 성공한 대통령이 누가 있었는지 선뜻 답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개헌에서) 정치 체제 부분이라도 손댈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당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논의될 자체 개헌안은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통령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등 대통령의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 방안과 함께 의회의 권한 남용을 막을 ‘양원제 도입’ 등의 개헌도 거론된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이르는 데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도 한몫 했다는 인식에서도.

권 원내대표는 “현 정국 상황은 대통령의 권력과 국회의 권력이 정면으로 충돌한 결과”라며 행정부와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다음 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도 개헌 관련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전해졌다.

나경원 의원 역시 이날 SBS 라디오에서 “개헌을 굳이 논의한다면 ‘제왕적 의회’부터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론은 물론 야권과 정치 원로들 사이에서도 개헌론이 나온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를 개헌 동력으로 삼아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도 등도 읽힌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개헌 주장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당 대표들로 구성된 ‘나라를 사랑하는 원로 모임’도 권력분산·견제 장치를 두고 승자독식 구조를 깨는 개헌을 제안한 바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개헌은 자신이 가진 권력을 내려놓으면서 할 때가 가장 진정성이 있는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집이 불에 타버렸다”며 “이제 와서 ‘나라를 위한 개헌을 하자’고 하면, 이재명 대표에게 먹히겠다”라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양부남, 공기업 기관장 ‘낙하산 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 국회의원은 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공기업 기관장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통과하고, 국회가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대통령의 일방적인 공기업의 장 인사 전환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이를 감시하고 시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공운위는 공기업의 장 임명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기구로, 기재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당연직 공무원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에 보은 인사 등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대통령 관저 불법건축공사를 총괄 관리한 고인진 전 비서관이 한국공사 사장 공모를 신청해 사실상 보은인사라는 지적됐다. 특히 김건희 라인이라는 이유로 임명

란이 되었던 민영삼 한국방 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은 사장 후보 모집 당시 공란이 수두룩한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개정안은 공운위가 심의의결한 후보자를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에 즉시 통지하도록 하고, 국회가 후보자의 결격 사유를 검토한 후, 부적절할 경우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양부남 의원은 “공기업 사장이 정권의 ‘전리품’처럼 활용되면서,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들이 속속 임명되어 왔다”며 “국회가 이를 감시하고 시정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부겸 전 총리, 광주·전남서 2박3일

오늘부터 5·18 참배·특강 등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7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광주·전남을 찾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땀밭 다지기’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6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7일 오전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로 광주 일정을 시작한다.

김 전 총리는 1980년생 청년 2명과 동행해 5·18 정신 계승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다.

8일 오후 2시에는 광주시 서구 염주체육관 국민생활관 1층 대강당에서 광주 청년을 대상으로 ‘탄핵 후 국가 대개혁을 위한 청년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연다.

김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하고 광주 청년이 민주·인권·평화의 상

징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전 총리는 이후 전남으로 이동해 목포·여수·순천 경제인들과 만남 계획이다. 12·3 비상계엄 여파로 내수경제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어 지역 경제인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필요한 지원·조치 사항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총리는 “광주·전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희망이자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이 준비되는 데에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지 물어볼 작정”이라고 밝혔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파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아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애니로마트점점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